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일 운영합니다”



해남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작업 추진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휴일에도 운영한다. 휴일 운영 사업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해남읍 용정리)이며, 4월 6일부터 5월 25

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전화(☎061-531-3835-6) 또는 방문하여 사전 예약하고 임대할 수 있다.

농번기 맞아 일손 부족 해소·적기 영농작업 추진 5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휴일 운영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작업 사전 준비와 임대 계약시간 이후 농작업 종료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출고시간과 반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농기계는 사용 예약일 전날 오후 4시 이후 출고 가능하고, 사용일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반납할 수 있다. 해남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퇴비살포기, 마늘쪽 분리기 등 35종 715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소를 비롯해 농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군은 관내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과 부족한 일손 해결을 위해 2005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 본소를 포함해 남부, 북부, 서부, 동부 등 권역별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 휴일 운영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적기 영농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번기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장흥군,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장흥군은 9일 군청 회의실에서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성 군수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부군수 이하 사업 추진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3건의 사업 내용을 공유하며 타사업과 연계성, 부서별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각종 공모사업과 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해 총사업비 2,789억원을 확보했다. 지난해 3월에는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50억원) ▲서부권 공립 등산학교 공모사업(80억원) 등에 선정되면서 지역자원의 활용성을 높였다. 군은 앞으로 ▲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관산읍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이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전남도, 중앙부처 등 주요 기관의 사업 추진방향을 파악해 구체적인 예산 확보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지난해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제 13회 수산인의 날 개최 기념 ‘1만 마리 치어 방류’



완도군은 4월 12일 완도항 1부두 일대에서

치어(점농어) 1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치어 방류는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4월 17일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고 아이들에게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완도군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공희 완도군

의회 의장, 김충남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김정선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삼호 수산경영인연합회장, 박희준 완도어선연합회장 및 관내 초등학교 등이 함께 했다. 방류된 점농어는 서남 해역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으로 여름철 어업인의 주 어획 품종이다. 이날 ‘바닷속 이야기’라는 주제로 어린이 사

생대회도 진행됐으며 관내 초등학교생 100여 명이 참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알리는 수산인의 날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바다와 공존하며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만큼 수산 자원 및 바다 생태계 보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은 4월 17일 오후 2시 완도군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진도군, 청소년 마음지킴이 이동버스 운영으로 큰 호응

진도군이 최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위해 ‘청소년 마음지킴이 이동버스’를 운영했다. 청소년 마음지킴이 이동버스는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도면 청소년들과 상담을 통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고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의 청소년마음지킴이 버스와 연계해 실시했다.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생활을 위해 먼저 개인상담, 심리검사, 스트레스검사, 청소년전화1388 홍보 등과 U&I 성격유형검사,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니 꽃바구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마음건강지킴이 상담 체험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을 더 이해하고 현재 스트레스 상태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 진도군 가족행복과 관계자는 “평소 상담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웠던 조도면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 등 다양한 상담창구 구축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토요일은 마랑에서 놀자!”

마랑놀토수산시장 4월 27일 개장...새로운 콘텐츠 보강 신선함 더해

“2024년 제8회 마랑놀토수산시장”이 완연한 봄과 함께 오는 4월 27일 돌아온다. 마랑놀토수산시장은 27일 개장식을 시작으로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마랑항 중앙파제(마랑면 미항로 152)에서 운영되며, ‘반값 가족여행 시즌2’와 연계해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적극 나선다. 이번 개장행사는 오후 2시, 마랑놀토수산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성공 기원 퍼포먼스와 함께 목포MBC 라디오 ‘즐거운 오후 2시’ 현장 녹화방송으로 진행된다. 축하무대에는 ‘불타는트롯맨 Top1’ 손태진, 배일호, 이소나, 김현진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운영 및 판매부스는 5종 29개 소로, 횃집 등 음식점(4), 수산물코너(7), 건어

물 판매장(2), 길거리음식(6), 할매니점터(10)에서 싱싱한 수산물과 다양한 먹거리를 매주 토요일마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군은 대형, 의상, 포즈 등 다양한 요소를 변경해 멋진 프로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포토 부스와 무중력 퍼포먼스, 공중 부양 포토존을 새롭게 선보이고 LED바다분수와 미디어 파사드 설치로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MZ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토요일마다 댄스공연, 퓨전국악, 마술쇼 및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관광객 노래자랑을 통해 방문객들이 숨겨진 재능과 끼를 표현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즐길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랑 전망대 카페에서는 로봇커피머신이 내러주는 커피를 마시며 마랑의 명물이자 천연기념물인 까막섬, 고금대교 등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칼라데이를 통해 특정한 색의 옷을 입고 전망대 카페를 방문하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영옥이 ‘마랑에 가고싶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팬들의 성지 순례 코스가 된 마랑항에

서 열리는 놀토수산시장은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105만여 명이 다녀가며 총 매출액 1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강진원 군수는 “반값 가족여행을 통해 마랑놀토수산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과 품질로 관광객 대거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